

# 창립기념 맞은 포교 도량들 역량 모은다

## 미타선원·대광명사·바라밀선원 등 창건 기념법회

경상권 도심 포교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원 및 사찰이 잇달아 창건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창건을 기념한 부산 미타선원, 대광명사, 바라밀선원, 진주 월경사는 향후 비전을 제시하며 포교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발원했다. 아울러 나눔으로 창건의 기쁨을 회향하며 그동안 발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대중에게 전했다.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4월 20일 경내 극락보전에서 '창립 19주년 기념법회 및 개산대제'를 봉행했다. 부산 남포동 변화가 중심에 위치한 미타선원은 '마음 편한 절'이란 목표로 현대인들의 힐링 컴퓨터 자리 잡았다. 특히 행복선 수행학교를 통한 신행 교육과 명상상담센터 '희망과 사랑'을 통해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편히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널리 알려졌다.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창립 기념 법회는 주지 하림 스님의 봉행사 및 이웃사랑의 보살행 후원금 전달,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이어 행복선수행학교 교장 월암 스님의 법문과 합동 천도제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하림 스님은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의 세계에 눈을 뜨고 마음 공부와 명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질의 풍요만으로는 행복 할 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뜻이다"며 "이것은 부처님의 출가한 목표와 다르지 않다.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평소 딱은 지혜로 보현행을 나타 낼 수 있도록 나눔도 실천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광명사(주지 목종)는 4월 17일 경내 법당에서 '개원 7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대광명사는 부산 해운대 내 정법도량을 지향하며 불교대학을 통한 경전 공부와 실천을 강조하고 참된 불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 도심 힐링·전법도량 발돋움 지역 사찰로서 면모 일신 다짐

기념법회는 특별한 내빈은 따로 초대하지 않았다. 대광명사는 "신도들이 곧 불보살이며 그들을 위한 날로 정해 그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대광명사는 그 날 찾아온 불자 300여 명에게 차량용 호신불과 생일 떡을 나누며 함께 축하했다.

주지 목종 스님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돕고 배운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전법이 담이며 불국토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도량으로 성장할 것이다"고 전했다.

바라밀선원(주지 인혜)은 4월 10일 경내 법당에서 '개원 3주년 기념법회' 봉행을 봉행했다. 바라밀선원은 창건 당



도심 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원 및 사찰들이 연이어 개원기념법회를 봉행하고 포교·기도·수행·정법 도량이 될 것을 발원했다. 사진은 4월 20일 미타선원이 창립 19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개산대제를 개최한 모습.

시부터 시작한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지난 3월 20일 제2차 천일기도를 입재했다. 포교를 발원하며 김해에 문을 연 주지 인혜 스님은 현재 김해 연지공원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 2층 규모의 법당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개원법회에서 주지 인혜 스님은 불사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전법 도량을 서원했다. 아울러 바라밀선원은 지역 내 중고등학생 3명에게 각각 50만원씩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월경사(주지 명구)는 창건 40주년을 맞아 '창건 기념식'을 4월 9일 경내 일승전에서 개최했다. 아울러 '수월 관세음 보살 점안식'도 함께 봉행했다.

월경사는 진주 도심에 위치한 천태종 사찰이다. 특히 매일 밤 10시에 시작해 새벽 3시 까지 진행되는 관음정진기도에는 지역 신도 100여명이 꾸준히 참석해 열린 기도 도량으로 유명하다.

또한 매달 2째주 토요일에는 정기 법회를 열고 그 직후 3일 동안 특별 기도를 개최해 평균 300여 명이 기도 동참하고 있다. 월경사 창건 40주년 기념식에는 천태종 종단 대덕 스님들을 비롯해 지역 내 기관장, 불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명구 스님은 "신도들간의 화합과 열린 사찰, 기도 사찰로 더욱 일신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 달구벌에 불 밝힌 자비의 등불

### 대구불총, 4월 9일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사)대구불교총연합회(회장 효광)는 4월 9일 대구 국제보살기념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알리기 위한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과 천태종 대구 대성사 주지 화산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 정효청장, 대구불교총연합회 소속 회원 스님을 비롯해 류병선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도회장, 손창수 동화사 신도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효광 스님은 "우리가 고통을 부처님의 지혜로 정화시키고 내일을 위한 지비의 등불을 밝혀나가자"고 인사했다.

이후 점등식 참가 사부대중은 시내



(사)대구불교총연합회는 4월 9일 대구 국제보살기념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알리기 위한 점등식을 개최했다.

중심가로 이동해 형형색색 연등을 들고 행진을 진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가난한 이웃 위한 나눔 전시 '훈훈'

### 혜우 스님, 8~12일 '존재의 시선'展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 회장 혜우 스님(약수사 주지)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를 통한 판매 수익금은 모두 사하사암 무료급식소에 회향된다.

4월 8일~12일 동안 '존재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부산을속도 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됐다. 4월 8일 개막식에는 사하구불교연합회 스님 및 사부대중 500여 명이 자리했으며 함께 축하하고 마음을 모았다.

혜우 스님은 "어머니 태안에서부터 부처님 법당에서 초를 보고 살았다.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어 기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 회장 혜우 스님은 사진 전시회를 4월 8일~12일 동안 '존재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쁘며 빛을 의미하는 초와 지금 나눔 활동의 뜻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전시 개막 소감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 천태종 대구 동대사 창립 8주년 법회

천태종 대구 동대사(주지 도산)는 4월 10일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대성사 주지 화산 스님, 정동수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춘광 스님은 법에서 "밝고 맑은 동대사의 기운은 8년 동안 사부대중의 기도원력 덕분"이라며 "정정하고 진실한 천태불자들로 거듭나 일체중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종단과 사회가 더욱 발전되길 기원한다"고 설했다.

주지 도산 스님은 "법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절의 주인이다. 신심을 통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성취되는 그런 도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사찰 평생교육원서 행복 방법 찾으세요

### 울산 정토사 '행복한평생교육원' 개원

마인드케어지도사 과정 개설  
마음관리 전문가 육성 나서  
선업 스님 등 강사로 참여  
"마음건강 명상법 전파할 것"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가 새롭게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시민을 위한 강의를 개설했다.

정토사 행복한평생교육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을 추구하고 마음을 보살피는 방법을 소개해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행복한 평생교육원은 첫 강사로 마인드케어지도사 전문과정을 개설했다. 이

과정은 자신의 마음은 물론 타인의 마음 수련까지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을 마치고 심화 집중수련 기간을 거치면 마인드케어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 할 자격이 주어진다. 마인드케어지도사는 학교 현장이나 감정노동자, 심인성 질환을 관리하는 마음관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4월 15일 오후 7시 선업 스님(통담아카데미 원장)의 '마음산업의 흐름과 마인드케어'라는 특강으로 시작해 7월 8일 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10시 30분 동안 이론 강의와 실참이 진행된다.

강사는 선업 스님(통담아카데미 원장), 이태호(㈜ 마인드케어 대표이사)와 손일권 대안(대학)교육기관 대표가 담

당한다.

내용은 △마음산업의 흐름 △앗기·간기·생활 SATI-Technic △자비관(慈悲觀)Metta기술 △마음물리특성 △마음의 구성과 기능 △기억법칙 △SATI법칙/마음화학반응 △마음공학 △수행철학 △행동원칙 △성격이해 △현대심리학의 흐름 △상상심리 △집중수행 등이다.

교육 장소는 정토사 경내 설법전이다. 행복한평생교육원 설립한 주지 덕진 스님은 "오랫동안 불교대학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불교와 명상 등을 지도했는데 이제는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마음건강에 도움이 되는 명상법 등을 적극 소개하여 많은 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052)271-7003 **하성미 기자**

## 홍법사 제1회 작심단기출가 회향

홍법사(주지 심산)가 제1회 작심단기출가 회향식을 4월 7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거행했다. 회향식은 제1기 작심단기출가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효과를 소개했다. 이어 제1기 작심단기출가 구범여행(6박 7일간의 자취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며 돌아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오선자(62·선명화), 성여진(71·여여성), 강남희(81·무심월), 김해경(82·청정월), 조해수(81·수월행)불자는 수료증 및 108염주를 선물로 받으며 기뻐했다. 참가자들은 주지 심산 스님께 감사의 꽃바구니와 어간좌복 불사비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법사는 "새롭게 마련한 작심단기출가 템플스테이로 모든 일상 생활을 접고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홍법사는 제1회 작심단기출가 회향식을 4월 7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개최했다.

위한 시간으로 개최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노년기에도 수행공동체의 일상 생활과 수행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홍법사는 앞으로 매년 4월과 11월 매년 두 차례 작심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접고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하성미 기자**



#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중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씩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를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